

‘카드깡’ 통해 공금 유용 전 농협 조합장 등 적발

전남경찰, 완도군청 공무원도 수취 입건

농협의 각종 사업 추진비용에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속칭 ‘카드깡’하는 수법으로 수 천만원을 조성에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농협 조합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팀은 9일 ‘카드깡’을 통해 농협 사업추진비를 비자금으로 확보해 사용한 완도 K농협 전 조합장 서모(61)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완도 C농

협 전 조합장 김모(52)씨 등 농협 관계자 5명을 같은 혐의로, 행정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완도군청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3~2005년 농경활동비·지도사업비 등을 집행할 때 사용한 농협 법인카드를 이용해 농협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수법으로 2천7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차명계좌

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출장비와 판공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서씨는 또 농협 임원 B씨와 함께 퇴비업자로부터 납품 대가로 880만원을 받고, 미곡 가공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납입금을 농협의 가지급계정에서 지출하는 등 1억8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C농협 전 조합장 김씨는 서씨와 같은 수법으로 2004~2006년 91차례에 걸쳐 7천2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출장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출근길 시내버스 신호등 ‘깡’

9일 오전 8시40분께 광주시 동구 호남동 중앙대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후 신호등을 들이받은 S운수 77비33×호 6번 시내버스. 이 사고로 출근길 차량 통행이 30여 분 이상 정체됐고, 승객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나원침 (7327) 김중두



공적자금 60억 투입...임원 도덕적 해이 심각

■ ‘요지경’ 완도 C농협 합병 2년만에 다시 부실 직원들만 구조조정 피해

각종 사업 추진비 유용이 적발된 완도 C농협은 지난 2005년 12월 부실 경영이 드러난 군내 W·G·S농협 등 세 곳이 합병된 곳이다. 당시 C농협에는 공적자금 60억원이 투입됐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9명이 퇴출당했다.

합병 이후 C농협은 농협중앙회의 권고에 따라 수익 사업으로 운영하던 냉동창고·보관창고 등 경제 사업장을 폐쇄했다. 이후 C농협은 자본금 40억원에 조합원 수 4천556명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전 조합장·미곡처리장 책임자·일부 임원들이 조합원들의 실익을 위한 노력보다는 각종 사업비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이용해 수 천만원의 비자

금을 조성, 유용하면서 합병 2년 만에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했다.

C농협은 현재 100여여명의 부실을 떠안고 있으며, 지난 4월 농협중앙회의 권고에 따라 오는 12월 인근 G농협에 흡수통합된다. 또 운영 중인 주유소도 폐쇄하고 경제사업으로는 고차 비료·농약 판매만을 하고 있다.

문제는 부실로 인한 이번 흡수통합 과정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임원·하위직 등 22명이 쫓겨나게 될 처지라는 점. 직원들은 이 때문에 “한 차례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으로 또다시 구조조정과 흡수합병이라는 미봉책(彌縫策)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농협의 부실은 직원들의 책임보다는 경영 책임이 있는 조합장 및 임원들의 도덕성 해이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수사는 임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경영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구조조정 관행에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국체전 관람객·선수단

사고·부상 잇따라

안전요원 부족 통제 못해

제88회 광주 전국체전 개막식을 전후, 관람객과 선수·임원 등이 다치는 등 부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7시40분께 월드컵 경기장 E구역 W열 출구 근처에서 개막식을 보고 나오던 정모(73·광주시 서구 영주동)씨가 인파에 떠밀려 쓰러진 후 뇌출혈을 일으켜 전남대 병원에서 옮겨져 있다.

당시 같은 구역에서는 최모(여·83·남구 주월동)씨도 함께 넘어져 119에 의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이외 N구역 E열(국기계양대 열)

에 있던 노모(여·53·동구 서석동)씨도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3만여 명의 시민·학생 등이 참석했으나, 안전요원은 70명에 불과해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관람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또 이날 오후 8시7분께 김모(17·서구 영주동)군이 월드컵 경기장 남문 출입구에서 못에 발바닥이 찔렸다. 앞서 오후 7시39분께는 경기장 주변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던 안모(여·4·남구 백운동)양의 눈에 폭죽 파편이 들어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체전에 출전하는 선수와 임원들도 연습 도중 부상을 당했다.

9일 재외동포 축구경기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임모(20·중국)씨는 지난 8일 밤 10시53분께 광산구 소촌동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연습 중 왼쪽 새끼 손가락이 탈골됐으며, 전남 밤 10시께는 철인 3종경기 선수 이모(37·전남)씨가 사이클 연습 도중 허벅지와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이외 대한역도협회 이사 김모(38)씨도 지난 8일 밤 9시41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M모텔 주차 리프트에서 발을 헛디뎠다 2m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다.

한편 광주시와 시 소방본부는 경기장 58곳에 46대의 급급차·펌프차 등을 대기시키고, 170여 명의 의사·간호사·소방관 등을 배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고경석기자 kps@kwangju.co.kr

심증만으로 불법 체포 대법, “국가 배상해야”

경찰관이 구체적 확인 없이 의심과 추측만으로 시민을 불법체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해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A(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광주의 한 카센터 앞길에서 사귀던 남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된 상대 남성의 트럭 뒷바퀴 부근에 주그리고 앉아 인근 상점에서 산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바닥에 내리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은 A씨가 가스통을 내리쳐 새어나온 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것으로 생각, 저지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A씨는 저항하다 넘어져 오른쪽 팔에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마약운반 30대 자살

지난 8일 밤 9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에서 김모(36)씨가 목에 매 숨겨놓은 것을 누나(40)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마약을 운반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로, 9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김씨는 유서에서 “친구의 꾀임에 넘어가 이렇게 됐으니 꼭 처벌해 달라”며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남아 있는 아들을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경찰관 치어 숨지게한 상습 절도범

징역 10년 중형 선고

검문 경찰관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절도범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관사 강신중)는 9일 농촌 빈집을 털러다 발각돼 도주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상습 절

도범 최모(2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던 젊은 경찰관의 생명을 앗아간 점과 수심이 차례에 걸친 절도 횡수,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17일 낮 화순군 도암면 한 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들켜 달아나던 중 화순읍 영남리에서 중앙선을 넘다가 이를 가로막는 화순을 지구대 김모(당시 36세) 경장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최씨 등과 함께 전남·북 지역 농촌을 돌며 70여 회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김모(26)·장모(26)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편이 다른 남자 시켜 아내 성추행

○대전서부경찰은 9일 다른 사람을 시켜 자신의 아내를 강제추행토록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최근 아내 몰래 ‘스왑링’(부부나 애인 교환 성관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께 대전의 한 모텔에 투숙해 술을 마시다 아내가 취해 잠들자 스왑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을 불러 들여 아내를 추행토록 했다는 것.

○A씨는 잠결에 깨어난 아내가 강하게 반항, 상대방이 돌아가자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며 자신이 성폭행한 뒤 또 다른 남성을 불러 추행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A씨는 두번째 도착한 남성에게 아내가 신고를 부탁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에 달미. /연합뉴스